

지방자치·종합

상위 20명 중 야당 13명 '여소야대'

■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

'청목회 여파' 전국 의원 310억... 35% 줄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20명 중 지난해 정치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의원은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우윤근 의원으로 드러났다. 반면,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가장 적은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1년 정당·후원회의 수입·지출내역'에 따르면 우윤근 의원의 후원금 모금액은 1억 6872만원이었다.

이는 광주·전남 의원 한 명당 평균 후원금 모금액 1억 1925만원보다 4946만원 많은 금액이다. 이어 민주당 이나연(1억 5900만원)·최인기(1억 5798만원)·강기정(1억 5000만원) 의원이 상위 4위 안에 들었다.

강 의원은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전국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상위 2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후원금 모금실적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둔 의원은 941만원을 모은 민주당 박상천 의원으로 드러났다.

이어 민주당 유선호(7293만원)·김효석(7700만원)·김영록(8805만원)은 하위 4위 안에 포진됐다.

전국 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액은 310억원으로 전년도 477억원보다 35%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후원금 모금액은 1억 400만원(지역구 의원 1억 1300만원, 비례대표 6200만원)으로 전년도 1억 5600만원보다 5200만원 줄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목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민의 정치 불신 등으로 소액후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후원금 모금액 상위 20명 의원 중 야당 소속이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후원금 모집 상위 20위에

한나라당 의원 16명, 민주당 의원 4명이 올라 있던 것과 비교하면 후원금 '여소야대'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후원금 감소에 여야 모두 손해를 봤지만, 직격탄은 맞은 쪽은 여당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 183억 9697만원을 모금했다.

이는 지난 2010년(297억 7796만원)보다 38% 줄었던 수치다. 민주통합당은 98억 2982만원을 모금해 2010년(135억 2792만원)보다 18.3% 감소했다.

현 정부의 임기 말에 치러지는 4·11총선에서 야당에 유리한 구도가 예상되면서 야당에 대한 후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여야 정당의 재산총액은 51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의 627억원보다 113억원 감소했다.

새누리당이 495억 3500만원, 민주당이 52억 800만원, 자유선진당 6800만원, 통합진보당 10억 1400만원, 진보신당 4억 3900만원이었으며 창조한국당은 부채가 48억 8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 2011년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선거구명	모금액(원)
우윤근 광주	168,722,490
이나연 합평·영광·장성	159,000,000
최인기 니주·회순	157,988,650
강기정 북구 갑	150,000,000
박지원 목포	149,951,000
김동철 광산구 갑	146,600,000
이운석 안주·신안	144,856,000
이용섭 광산구	141,857,373
조영택 서구 갑	129,450,000
장병완 남구	127,955,647
박주선 동구	127,369,984
김재균 북구 을	122,912,150
김성곤 어수 갑	118,166,018
주승용 어수 을	109,967,100
김선희 순천	94,100,000
김영진 서구 을	88,830,008
김영록 해남·완도·진도	88,050,000
김호석 담양·곡성·구례	77,000,000
유선호 장흥·강진·영암	72,930,000
박상천 고흥·보성	9,411,00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례문 상량식

8일 오후 승례문 복구 현장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찬문화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량식이 거행되고 있다. 상량식을 계기로 승례문 복구는 앞으로 추녀와 서끼래를 설치한 다음 지붕에 기와를 놓고 단청과 방재시스템을 10월 말까지 설치한 후 가설 덧집을 해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변정비에 들어가 오는 12월 복구공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승촌보 바닥보호공 유실 보강공사"

의산청 밝혀... 환경단체, 영산강 현장조사

의산청방지국토관리청은 8일 "승촌보 바닥보호공의 일부 유실을 확인하고 보강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산청방지국토관리청은

꽤 사석이 함께 헛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산청방지국토관리청은

지난 6일부터 승천보 하류에 가물막 이를 설치한 채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보강공사는 민관합동 특별점검단의 자문을 받아 사석을 막는 반 위에 있고, 콘크리트 타설 등을 통해 이를 견고하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유실은 지난 2월 영산강 하류의 죽산보가 체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천보 수문을 개방, 집중 방류하면

서사석과 암반 사이의 토사가 유실

으로 판단했다"며 "영농과 전체 공사 시기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보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 공동행동과 생명의 강 연구단은 "9일 광주·전남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일대에서 수질과 하상보안장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영산강 하류 지점부터 강을 거슬러 광주천 합류지점까지 올라가면서 4대강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열 등보 안정성 ▲하상 세굴 현상 ▲수질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국회의원 후원금 들여다보니

신원 안 밝히고 '품앗이 기부'

국회의원 간 풋앗이 기부를 하거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2011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직업이나 주소·연락처·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는 이름·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직업을 밝히더라도 사업가·자영업·회사원·사업·수산업·임대업 등으로 표기해 구체적인

직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품앗이 기부'도 있었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같은 당 김충조 의원으로부터 46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또 우윤근 의원은 국회 법사위 박영선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유관단체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김영록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수신업으로 적힌 사람으로부터 4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그동안 공천에서 이 의원은 서울 은평구에 공천됐으나 진수희·권택기 의원, 김해진 전 특임차관 등 최근 인

이재오 공천 비판... 친이 행동 나서나

"감정·보복 공천 말아야"... 나경원 불출마 선언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의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8일 4·11 총선 공천과 관련, 맹공을 퍼붓고 나서면서 친이계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당은 지금이라도 언론의 지적대로 감정적·보복적 공천을 하지 말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작업을 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은 당이 공천을 불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면 4월에 표로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친이계 대권주자급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친이계가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친이계는 공천의 윤곽이 뚜렷해지는 이번 주말에 대대적 회동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남 사천·남해·하동과 거제에 각각 공천을 신청했다는 탈락한 이방호 전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월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동안 공천에서 이 의원은 서울 은평구에 공천됐으나 진수희·권택기 의원, 김해진 전 특임차관 등 최근 인

사들이 공천에서 보류 또는 탈락하면서 '친이재오계가 표적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는 다만, 친이계가 대거 포진한 영남권 공천 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 "공천이 완료된 뒤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말한 것이다.

이 같은 친이계 대권주자급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친이계가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친이계는 공천의 윤곽이 뚜렷해지는 이번 주말에 대대적 회동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남 사천·남해·하동과 거제에 각각 공천을 신청했다는 탈락한 이방호 전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월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경우로 예상된다.

수종은 편백나무 등 기후변화 대응 상으로 290만4000㎡(그루 60%)와 백합나무 등 산림 재생에 기여하는 방풍림을 조성하기 위해 25㏊에 1만3000 그루를 심기로 했다.

수종은 편백나무 등 기후변화 대응 상으로 290만4000㎡(그루 60%)와 백

전남도, 169억 들여 나무 480만그루 심는다

전남도는 올해 조림사업 대상면적을 2425㏊로 확장해 모두 48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조림사업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69억 원이 투입된다.

수종은 편백나무 등 기후변화 대응 상으로 290만4000㎡(그루 60%)와 백

산림 소득증대를 위한 활동 등 특용 39만 그루(8%) 등도 심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성에 편백림을 조성하고, 보성 득량면에

난대 특화림을 만든다.

서남해안 삼 지역에는 해제피해를 예방하고 경관을 향상하는 방풍림을 조성하기 위해 25㏊에 1만3000 그루를 심기로 했다.

민관합동 특별점검단 김철 교수는

"승천보 하류지역은 바다 전체가 암반대여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

/이종행기자 kroh@kwangju.co.kr

화정주공 잔류 100세대

광주시, 임시거처 마련

광주시는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쓰일 화정주공아파트에서 아직 이주하지 못한 100여 세대에 도시공사에서 보유 중인 임대주택 68세대를 입주자에게 하상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 299세대를 지어 맞춤형 분양단지를 향상화하기 위해 25㏊에 1만3000 그루를 심기로 했다.

서남해안 삼 지역에는 해제피해를 예방하고 경관을 향상하는 방풍림을 조성하기 위해 25㏊에 1만3000 그루를 심기로 했다.

민관합동 특별점검단 김철 교수는

"승천보 하류지역은 바다 전체가 암반대여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

/이종행기자 redplane@

때는 위임장을 작성 위임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나. 신청시 구비서류는 1) 응시메일 신청서 접수증(보증금 부여증명) 등

- 대. 추첨서 1) 응시메일 신청서 접수증(보증금 부여증명) 등

2) 신분증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인증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4. 입찰지역의 제출서 제출

가. 입찰서는 제출시간은 온비드 입찰관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는 제출시간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간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당일 입찰시간까지 접수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후 회장증 등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온비드 서버에 접수되는 경우 입찰서는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or.kr)에 접수되는 경우입니다.